

01 교회소식

작은 섬김, 큰 기쁨

교회 구석구석에서 성도들의 손과 발이 돼 섬김으로 행복을 전달해 주는 귀한 성도들을 소개한다.

02 생명의 말씀\_ 십계명 시리즈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창조주요 구원자이며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축복받기를 원하신다.

03 신앙상담

‘기사’와 ‘표적’, 그리고 ‘이적’이란?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 ‘이적’의 정확한 의미와 어떻게 구분돼 각각 사용되는지 알아본다.

04 간증

“주님을 믿으니 참 평안하네요~”

회개한 뒤 맹장염을 치료받은 김영주 집사와 만민을 만나 치료와 축복의 역사를 체험한 싱가포르 에스더 심 집사 간증.

# 만민뉴스

제652호 2014년 9월 2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봉사 통해 맛보는 섬김의 기쁨



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 주변을 환하게 밝히듯, 우리 교회 곳곳에서도 주님의 몸 된 지체들을 섬김으로 행복을 주는 이들이 있다.

바로 만민봉사대(지도교사: 조대회 목사, 총부장: 김종술 장로, 총대장: 공석완 집사)를 비롯한 각 연합회 봉사부, 교회 상근 직원들로 구성된 성도들의 애경사를 돕는 레위봉사대(지도교사: 조수열 목사, 대장: 홍명일 장로), 그리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많은 일꾼이 그 주인공이다.

주일마다 성전 및 화장실 청소, 점심 국수 준비와 설거지, 예배 전 후 교회 주변 교통안내 및 주차, 걷기 불편한 성도들을 휠체어로 성전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으며, 매주 각 성전에 주보를 비치하고 예배시간 틈틈이 에어컨이나 TV 모니터 상태를 체크하는 등 성도들이 불편한 상황은 없는지 늘 살피며 묵묵히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목자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해 시작한 봉사를 통해 영육 간에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고 간증한다.

만민봉사대 주정관 집사는 “당회장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고 은혜받아 우리 교회에 오게 된 후, 귀한 제단에 불러 주신 은혜가 감사해 봉사를 시작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할 뿐, 추위도 더위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성도들을 위해 제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생각에 항상 기쁘게 해 왔는데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사명 감당하면서 갑상선기능항진증도 치료받고 약한 몸도 강건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니 늘 즐겁습니다.”라고 말했다.

김희경 권사는 “봉사에 임할 때마다 영혼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떠올려요. 저희의 표정, 말씨, 손짓 하나하나가 성도님들께 은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니 15년간 매주 변함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잘되어 가며 자신의 위치에서 인정받아가니 행복합니다.”라고 한다.

더욱 감사한 것은 곳곳일 힘든 일을 기피하는 요즘 젊은이들과는 달리 많은 청년이 봉사의 사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신앙이 바로 서고 충만해지므로 영육 간에 축복을 받아가고 있다고 한다.

청년선교회 봉사부 박형진 형제는 “예전에는 봉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아주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봉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됐고 신앙의 기반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진로도 형통하게 인도받았습니다. 지금은 봉사하는 많은 형제와 함께 영적인 충성을 통해 목자의 열매로 나오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아동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섬김의 은혜와 기쁨을 알고 있다. 아동봉사대는 매주 교회 및 인근 지역 쓰레기 줍기, 아동주일학교 행사 지원 및 안내, 예배 후 성전 청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혜원 아동은 “하나님 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입단했어요. 언젠가 청소하는 게 힘들어서 대충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됐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깨우침이 왔어요. 그 뒤 열심히 봉사하니까 마음도 뿌듯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봉사를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느꼈어요.”라고 한다.

섬김의 본을 보여 주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다(마 23:12). 만민의 성도들은 자신을 낮춰 섬김을 실천하며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고 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그 마음을 닦고 싶기에 장년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년들도 봉사를 통해 배려와 섬김이라는 보화를 얻어가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매우 크다고 고백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급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1~3)

#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단지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상대가 힘든 일을 부탁해도 기쁨으로 들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녕 사랑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더구나 구약 시대에는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야 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시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지키기 힘든 것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 곧 생명의 씨가 자기 안에 있다면 죄를 지을 수 없으며 진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 2. 창조주요 구원자이시며 유일신인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1~3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급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란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며,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칭합니다.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급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결코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전지전능하시며 살아 계신 참신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또한 모든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사람에게 참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헛된 신들을 많이 섬깁니다. 태

양이나 북극성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돌이나 고목나무, 혹은 동물 등 각종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결코 축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한 대로 천지 만물을 보아도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동일하며 흑인이든, 백인이든, 눈과 귀는 두 개, 코와 입은 하나이며 위치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지요. 수많은 동물도 눈, 코, 입, 귀의 위치와 기능이 사람과 동일합니다. 이는 창조주가 한 분이심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는 자연 현상들을 보아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지구는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 낮과 밤, 그리고 사계절이 생기고 밀물과 썰물이 생기며 대기가 순환합니다. 이러한 천체의 위치나 움직임은 사람이나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환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도 가장 적당한 거리에서 무수한 세월 동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전과 공전을 해 온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계획되고 창조됐으며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운행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처럼 분명한 증거들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에는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사람들은 창조주를 인정하며 정도를 좇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만 보아도 범사에 사람의 도리를 좇아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요. 하나님과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무당이나 잠신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 가운데서 오직 하늘을 우러러 한 분 조물주를 경외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양심 심판’입니다(롬 2:14-15).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율법을 몰랐던 사람이라도 선한 양심을 좇아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중심을 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 3.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명하신 이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다른 신들을 의지하거나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점이나 주술을 의지하며 부적을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혹은 거짓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예식에 참석해 그들에게 동조하면서 마치 그것이 합리적이고 관용적인 자세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독교는 하나님만 믿으라 하니 너무 배타적인 종교가 아닌가요?”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사람이 섬기는 헛된 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것이요,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이지요. 원수 마귀 사단이 미혹해 헛된 것을 섬기게 함으로 결국 자신이 경배받으며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자기 안에 둘 때는 그 삶 속에 시험 환난이 끊이지 않고 눈물, 슬픔, 질병으로 불행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겨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고 듣고 체험했으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변함없이 섬기며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 66권 말씀을 기억하지는 못한다 해도 십계명 정도는 신앙인의 기본으로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열 가지 계명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 것으로 성경의 뼈대라 할 수 있습니다.

## 1. 성도들이 당연히 지켜야 하며 능히 지킬 수 있는 십계명

이 세상에 법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면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에 기록된 계명들로서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계명들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단이 시험 환난을 줄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며 결국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며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얽매고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눈물, 고통, 사망, 질병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나요?”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3:00 PM 9:00 PM
주일 저녁예배	11: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 기사와 표적, 그리고 이적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Q & A]

**Q** 성경을 읽다 보면 기사와 표적,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무엇이 기사이고 무엇이 표적이며 이적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날이 갈수록 세상은 최악으로 관영해 사람들은 신이 없다 말하기도 하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양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시대에는 최악 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증거들을 확실히 보여 주고 계십니다(히 2:3~4). 이러한 일들에 대해 성경은 ‘기사’와 ‘표적’ 또는 ‘이적’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 01. 기사(奇事)

성경에 나오는 ‘기사(奇事)’란 ‘천기(天氣)’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천기(天氣)란, 천체 곧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을 비롯한 모든 물체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기상 현상을 모두 포함하지요.

사도행전 2장 19절에도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말씀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중 하늘에 펼쳐진 기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호수아 10장 13절에 “...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태양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이와 비슷한 일이 열왕기하 20장 11절에도 나오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일영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심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시간을 맞춰보면 정확히 24시간이 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태양이 멈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야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하며 별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준 사실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보통 별들은 일정한 항로를 따라 운행하지만, 여기서는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움직였으므로 기사에 해당합니다.

기사(奇事)에는 ‘기상(氣象)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포함됩니다.

기상이란, 비, 눈, 바람, 구름, 기온, 기압 등 대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뜻하며, 성경에는 이러한 기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많습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 땅에 내린 열 재앙 중에서 우박 재앙(출 9:23)과 동풍을 일으켜 불러들인 메뚜기 재앙(출 10:13)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큰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신 일(출 14:21),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흘러내리던 물이 멈춘 일(수 3:14~17),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 삼 년 육 개월 동안 가뭄이 들고 다시 기도하자 비가 온 일도 있었지요(왕상 17, 18장). 마가복음 4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풍랑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기사도 기록돼 있습니다.

### 02. 이적과 표적

이적(異蹟)과 표적(表蹟)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로서 ‘보여지는 어떤 흔적과 증거가 남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을 이루신 주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 ‘이적’ 또는 ‘표적’으로 구분되지요.

‘이적’은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루시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의 대부분이 이적에 해당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된다거나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 피로 변한 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올라오게 한 일, 지팡이로 땅의 티끌을 치자 그것이 이가 된 일, 그리고 파리 떼의 재앙, 심한 악질의 재앙, 독종의 재앙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사기 13장 19~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데,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 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 일도 있지요. 여기서 이적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 이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첫 표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요 2:1), 병인들에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요 6:2). 곧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눈 먼 자로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로 듣게 하시며 병어리로 말하게 하시는 등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 14:12)고 하시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받은 사람들도 표적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시대에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며 표적을 나타냈고(행 19:11~12 ; 롬 15:18), 오늘날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9.21~9.27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2014 September**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창세기 강해 39~43 ■ 축복 7
- 신앙생활 쉽게하기 2 ■ 예언 2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3
- 육체의 결여 1-3 ■ 심계명 8~10
- 성경적 결혼관 1-2 ■ 신뢰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4-5
- 의와 틀을 깨뜨리자 1-2

**GCN TV설교**

- 육적인 사랑 2 (이수진 목사)
- 선택과 결과 (이미영 목사)
- 같은 상황, 다른 마음 (이미영 목사)
- 기도 4/ 영의 세계 4 (이화선 목사)
- 용기강해/ 생명수 5 (신동초 목사)
- 열재앙 6-7 (정구영 목사)
- 신앙의 기초 체력 (고경아 교육전도사)
- 하나 (조소영 교육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15 ■ 찬양 드려요 29
- 옛날 옛적에 8 ■ 알콩달콩 아여쁜 율동 25
- 모두 드려요 15 ■ 몽도 튼튼 마음도 튼튼 36
- 흥겨운 소리 10 ■ 뷰티풀 라이프 8
- English 13 ■ 플로리스트 11
- 만민지킴이 8 ■ 향기 30

**해외성회 및 교육**

-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2
- 2014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 1-2
- 회상 14

**1577-2073**

원상,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 방송사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결의 복음은 제게 참된 행복과 축복을 안겨 주었어요”

에스터 심 집사 (싱가포르만민교회, 43세)

2007년, 저는 평소 친분이 있던 황핑핑 선교사님과 함께 만민중앙교회 예배에 참석하고자 싱가포르에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생명력 넘치는 설교와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아름다운 찬양들, 불같은 기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영혼들을 섬기시는 당회장님의 뜨거운 사랑은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됐지요.

2010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2012년 9월, 싱가포르만민교회(담임 황핑핑 선교사)가 개척되면서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와 함께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목자를 만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올바르게 깨우치며 신앙생활을 하니 삶이 변화되고 축복이 임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사랑과 선에 대한 설교를 들으며 전혀 생각지 못한 많은 죄악이 제

마음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천국 처소가 달라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시니 성결의 중요성도 깨우쳤지요.

그래서 미움, 시기, 질투 등 비진리의 마음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니 언행이 달라져 남편도 좋아합니다. 이제는 불같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깨우쳐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고 아침마다 개인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년간 생리통으로 두통과 구토에 시달렸는데 깨끗이 치료 받았고, 재무설계보험을 판매하는 일에도 축복이 넘칩니다.

이처럼 성결의 복음은 제게 참된 행복과 축복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는 많은 영혼에게 복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알렉스 성도를 전도했는데, 그 과정이 당회장님의 기도로 결혼 5년 만에 잉태의 축복을 받고 소중한 아들을 얻어 얼마나 기쁘지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1995년 12월, 우리 교회에 등록된 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 열심히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아내 조경자 집사를 만나 2001년에 결혼했지요.

당회장님의 기도로 결혼 7년 만에 잉태의 축복을 받아 아들(김동은, 7세)을 얻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수학 강사를 하면서 퇴근이 늦어져 기도생활을 하지 못하니 겨우 주말만 지키는 초신자와 같은 신앙생활로 변해 버렸습니다.

2010년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지난날의 미지근했던 신앙을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제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였지요. 시중의 유명한 액션영화나 무협영화는 거의 다 볼 정도로 영화를 좋아해 기도를 쉬기도 하고 선정적인 영화도 보는 등 점차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져 갔지요.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놓았던 많은 영화를 삭제했다가도 다시 보기를 몇 차례 반복했습니다.

2014년 7월 28일 월요일,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저는 컴퓨터의 영화 사이트에 접속해 망설이다가 그만 다시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랫배에 통증이 시작됐지요. 처음에는 큰 통증이 아니었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가끔 통증은 있었지만 일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통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급기야 수요일 새벽 3시경에는 호흡 곤란까지 와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검진 결과,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니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심각해질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했지요. 이에 저는 아내에게 입원 준비를 해오도록 하고, 수술 전에 지역장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 송윤숙 지역장님이 오셔서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해 주셨는데 수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자의 공간 안에서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면 다음 주부터 있는 하계수련회는 참석 못하겠네요? 당회장님의 권능이 대단하신데...”라고 말씀하셨지요. 더구나 기도받은 후 마음이 시원했고 통증이 다소 완화됐

# “아들을 주시고 건강과 행복까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영주 집사 (2대대 16교구, 4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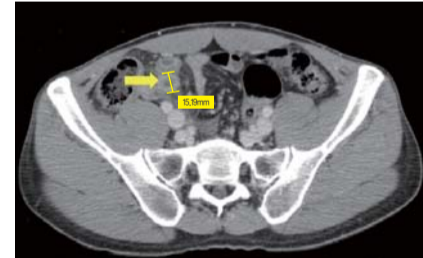


기에 저는 당회장님 권능의 기도로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병원을 나와 집에 틀어박혀 있을 아이를 뒤 만민기도원 환자 집회에 참석했지요.

저는 하나님보다 영화 보기를 더 좋아했던 것을 회개하고, 집회가 끝난 뒤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에게 기도를 받았습다. 그러자 남아 있던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지요. 다만 평소와 달리 밥 반공기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까지 만민기도원에 다니면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했지요. 아울러 사무실과 집 컴퓨터에 다운받아 놓았던 영화 파일들을 깨끗이 삭제한 후, 사모하는 마음으로 8월 4일부터 시작되는 '2014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 저녁, 당회장님의 교육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가스가 자주 나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맹장염을 온전히 치료해 주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요. 이어진 은사집회 때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고난 뒤부터는 밥 두 공기를 먹어도 속이 편안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병원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맹장염이 깨끗이 치료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받기 전] ← 충수돌기가 염증으로 인해 부어 있다.



[기도받은 후] ← 부어 있던 충수돌기가 정상으로 회복된 소견.

###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요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1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아산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세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읍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말영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백률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여수만민성결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리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복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4201 207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2)489-3766, 010-2208-5719
- 광명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강동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릉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5526-5746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